

노동자권리찾기 상담전화

부평공단	032-525-0497	전남서남	061-462-7177
남동공단	070-4756-0119	대구 성서공단	053-585-6200
경기	031-251-7095	포항	054-278-1339
안산/시흥	031-491-7097	녹산공단	051-941-8211
서울	02-2636-2148	창원공단	0899-2090
서울 구로/금천/관악/동작	02-867-2260	부산/양산	051-637-7433
의정부/양주/파주	031-866-8489	정관공단(동부산)	051-727-8977
광주	062-453-4012	대전충북	043-236-5077

바지樂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지키고! 즐겁게 살자!

2017년 2월호

발행처 전국금속노동조합 02-2670-9509

2면 전국은 지금 / 서울 /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3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창립

4-5면 단결론

6면 인터뷰 / 금속노조 대창지회

7면 노동안전보건칼럼 / 이주노동자칼럼

8면 전면광고

2017년 최저임금, 달라야 한다

1 최저임금 만원이 된다면?

정말 소박한 꿈들입니다.

현재의 임금 수준으로는 이런 꿈과 희망조차 꿀 수 없는 세상! 대한민국 노동자의 절반이 2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바꿔봅시다.



마트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란

초등 6학년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살림에 조금 보태려고 2년 전부터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로 살아온 나에게 새로운 일은 도전이었습니다. 대기업 마트에서 일한다는 뿌듯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듯했습니다.

입사 첫 날 계약서를 쓰는데 근무시간이 6시

간이라는 겁니다. 보통 직장이 8시간 근무인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서 더 좋을 수 있겠다 싶어 계약하고 일을 했습니다. 한 달 후 첫 임금을 받았는데 하루 6시간 근무, 시급 5,700원 한달 임금 약80만원. 정말 기가 찼습니다. 차비로 10만원 쓰고, 대출 30만원, 생활비로 40만원 쓰고 나면 제가 출근할 때 필요한 화장품 하나 마음대로 사기 힘든 돈입니

다. 2년 동안 시급이 올랐다고 하지만 오르는 물가에 비해 시급은 너무 적게 올라 아쉬웠습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딸이 학교 갔다 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공부도 봐줬는데 지금 모든 걸 포기하고 죽어라 직장을 다니는 현실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정작 이 월급으로 딸을 학원 하나 보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된다면

드디어 통장에 월급 209만원이 찍혔다.

지난달까지 세전 126만원 월급으로 전세대출 이자 15만, 고등학교 아이 버스비, 점심값, 용돈, 운영회비 등 25만원, 두 명 핸드폰요금 9만원, 인터넷, 수도, 전기요금 8만원, 아이 아토피로 진료비 5만원, 만일을 위한 최소한의 압보험, 실비보험 9만원, 식비 25만원, 내 교통비 6만원 등 정기적으로 102만원 지출. 옷, 신발은 마트 이월 상품 중 대충 골라 사고 안경은 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참

간신히 살았다.

하지만 이제 월급 209만원. 정기 지출 빼고 107만원이 남으니 은행에 들러 50만원 적금을 들고 성당을 통해 나보다 어려운 이웃, 단체에 10만원 정기후원을 하고, 쉬는 날 아이와 팝콘 사서 남들처럼 영화를 자주 봐야겠다. 마음이 내키면 내가 입고 싶은 옷도 한번 골라볼까? 딸아이에겐 유기농 식품을 먹일 수 있겠다. 아토피에 좋다는 로션도 사고, 하고 싶다는 합기도장을 알아봐야겠다. 계절마다 좀 덜 붐빌 때 여행도 갔다 올 수도 있겠다. 와,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최저시급 1만원.

공단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란

새해 출근 첫날부터 30분 동안 매년 반복하는 사장의 거짓 말을 들어야 한다. 사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한다. 사장은 적자인데 불구하고 또박 또박 월급을 주고 있으니 화장실 가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생산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한다. 사장은 저성과자나 관리자 말을 안 따르는 사람은 지체 없이 쫓아내라고 한다. 사장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 사장에게 우리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고 할까? 현실성 없는 기대일까?

같이 일하는 언니들은 사람다운 구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만, 돈 중심의 사회가 싫다고 한다. 함께 슬퍼할 일, 기뻐할 일도 최소한으로 챙길 수밖에 없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식사대접도 넉넉하게 하고 싶지만 마음뿐이다. 생활이 팍팍하니 마음도 팍팍해진다. 한 달 120만원으로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상반기 결정한다. 매월 지역과 공단노동자들에게 배포하는 <바지樂>은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한 내용을 지속해서 다룬다.

노동자가 나서면 무료노동이 사라진다

30분-1시간 조기 출근 무료노동, 노동부 불법규정·체불임금 지급 명령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무료노동이 사라지고 있다.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아무개 전자회사는 노동자들을 30분씩 일찍 출근시켰다. 가끔 1시간 일찍 출근시켜 청소하고 조회도 했다. 억울한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부 관악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노동청은 하루 30분 불법 무료노동을 인정해 노동자 1인당 80만원에서 260만원까지 지급 명령했다. 진정 노동자 모두 못 받았던 연장수당을 받았다.

이 회사는 이제 강제 조기 출근과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잔업 무료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아르바이트 월급 떼먹은 이랜드파크 사장 해임, 월급 반환 절차

애슐리, 자연별곡으로 유명한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4만4천명의 임금 84억원을 떼먹은 사실이 들통 났다.



‘서울남부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와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22일 아르바이트들의 임금을 떼먹은 이랜드 파크 박형식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들의 월급을 떼어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연장근무·야간근무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지급, 회사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분 단위 노동시간 쪼개 임금 미지급 등. 노동부가 모두 불법으로

인정해 이랜드파크는 4만4천명에게 84억원을 돌려주는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34억원 정도 지급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당사자들이 많아서 지급하지 못하는 돈은 공탁을 걸어 두었다가 끝까지 지급하겠다고 한다. 아르바이트 월급 너무 많이 떼먹은 박형식 대표이사는 해임됐다.

‘무료노동 부당해고 근절 신고센터’운영

임금을 떼인 억울한 일에 여러 명이 함께 나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 ‘서울남부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무료노동에 시달리고 일방 해고당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무료노동 부당해고 근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혼자 울지 말고 02-867-2260로 연락하라. 민주노총이 함께 한다.

서울남부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완성차 직·간접공정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정규직”

서울고법, 현대차·기아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인...남양연구소 시험차 도급도 불법파견

법원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연속흐름 방식의 자동차 생산 직접공정에 더해 포장업무·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 사내하청노동자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완성품 제작 제조업 생산공정에 사내하청 사용을 확대하는 경영방식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10일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두 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시험용 차량을 생산하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의 도급계약이 불법파견계약이라는 2심 판결도 같은 날 나왔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과 2012년 컨베이어벨트 라인을 따라 일하는 직접공정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이니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1민사부(부장판사 김상환)와 2민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각각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159명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4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

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현대·기아차가 사내협력업체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이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현대·기아차가 하청노동자들을 지휘·명령하는 실제 고용주, 협력업체는 인력만 보낸 파견사업주라는 것이다. 제조업 파견은 불법이니까 현대·기아차가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히 서울고법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포장이나 출고업무 같은 간접공정도 불법파견 범주에 넣었다.

서울고법은 이날 “사내협력업체가 작업내용·작업인원 등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데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없고 현대차가 구체적인 작업지시와 감독을 했다”며 “공장별·차종별로 정규직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은 채 업무 분담이 이뤄졌다”고 밝

혔다. 법원은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거나 고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근태도 파악했다”며 “협력업체가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분사나 폐업 등 본질적인 경영 사항도 현대차가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나온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차를 만드는 사내하청에 대한 불법파견 선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서울고법은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는 수동 컨베이어벨트 공정의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으로 봤다.

직접공정에 더해 간접공정 사내하청까지 불법파견으로 보는 판결이 계속 나오면서 제조업 전반에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완성품을 제작하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다”며 “간접공정 사내하청 사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전반에 불법파견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월5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창립...“주변에 가입할 노조 있어”



2월5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태어났다. 지회는 2월8일 거제에서 창립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노동조합이 있나요? 아마도 노동조합이 없는 곳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한국 노동조합 조직률은 10%입니다. 열 명중 한 명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서른다섯 개 국가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이마저 대기업이나 정규직에 노동조합이 집중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채 1%가 안 됩니다. 백 명 중 한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을까 말까 한 것이죠.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소 현장에 정규직 노동자보다 ‘하청노동자’라고 부르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 전체 조선소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가 17만명인데 이 중 정규직은 3만5천명이고 13만5천명은 하청노동자입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네 배 가까이 많습니다. 13만5천명이나 되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고작 300~400명 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성동조선해양 등 큰 조선소가 밀집해 있는 거제·통영·고성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가 6만~7만 명이나 되지만 하청노동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전혀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다보니 비정규직은 일하며 겪는 여러 가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묵묵히 참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조선업이 매우 어렵다며 2016년부터 정부와

조선소들은 이른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소가 어려워진 이유는 경영을 잘 못한 경영진 때문인데 구조조정의 고통을 떠안고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그 중 가장 힘없는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결과 하청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아 거제·통영·고성에서 2016년 1만 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됐습니다.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급증해 2016년 노동부 통영지청에 신고 된 체불임금이 1만3천명, 580억원이나 됐습니다. 2015년보다 2.7배 늘어난 액수입니다. 조선소 일방 임금삭감으로 대부분 하청노동자들 임금이 10~20% 줄었습니다.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더 이상은 참지 못 하겠다며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2월5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세상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거제·통영·고성에서 처음 만든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고 울산, 목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뒀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어느 회사,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상관없이 조선소 하청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흔히 ‘노동조합’ 하면 회사마다 있는 조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한 곳에서 오래 일하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하는 회사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일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나서서 노동조합을 만들려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경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 대부분 업무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만든 노동조합인 거통고조선하청지회에 개별로 가입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누구나 작은 용기를 내 가입원서를 쓰면 조합원이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면 노동조합을 통해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서 거제·통영·고성에서 활동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조합원에 더해 조선소 하청노동자 모두를 위한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청노동자들에게 가장 심각한 체불임금 문제의 경우 조합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거제·통영·고성 모든 하청노동자들이 체불임금으로 덜 고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만들어서 현실을 바꾸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 현장에 노동조합이 있나요? 만약 여러분 현장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서 주변에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봅시다. 내가 개별로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노동조합을 찾았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십시오. 노동조합과 활동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내 삶과 일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거제·통영·고성의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비로소 ‘노동조합 할 권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내 권리, 우리들의 권리를 함께 누릅시다.

내가 바로 금속노조 아이들

글·그림 반지수, <월간 오늘보다> 제공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두 가지 있었어요.



박진영이다!



하나는 연예인이 되어서 무대에 서는 것



아이씨 컴퓨터가 고장났네

야야! 내가 고쳐볼래!!



으... 잘 안 되네.



와.. 멋지다!



감사합니다!!

나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다.



고등학교 때 인기기수의 백댄서로 무대에 섰고



오디션에 합격해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 생활도 했지만



또래들과 비교되는 내 모습이 싫어

어린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 지금은



다 고쳐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기사로 경력 11년자입니다.



3년 전 노동조합이 생겼을 때 친한친구의 권유로 가입해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전국 노조가 생긴데, 내가 우리 성남센터에서도 나서볼 테니까 나 믿고 너도 같이 하자.



투쟁 과정에서 동료의 목숨을 끊었고 삼성 본사 앞에서 매일 머고지며 농성도 했었어요.



어느 날 농성장에서

오늘은 우리 삼성전자서비스회에 노래랑 몸짓을 알려주실 분들이 오셨어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아침 선전전 가지 말고 여기 남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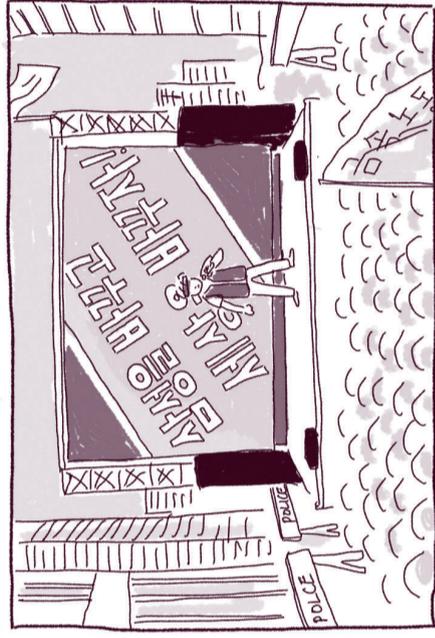


이쪽은 노래패~ 이쪽은 몸짓패~

아 저는요, 몸짓패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가 좋을래?



시화공단에 세운 노동자의 우산 ‘민주노조 대창지회’

[인터뷰] 나일권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장

바지락: 대창지회 노동조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나일권 대창지회장(아래 대창지회): 대창은 황동으로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드는 제조 사업장입니다. 주문에 따라 필요한 모양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 처음 상담한 게 2014년 8월이네요. 1년6개월 준비 끝에 2016년 4월 창립총회를 거쳐 11월 단체협약을 맺기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1월13일 지회 현판식 할 때 그토록 원했던 금속노조 대창지회 현판이 걸리는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절반은 이루었다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지 않고 믿고 따라온 228명의 조합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바지락: 대창지회를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창지회: 금속노조 대창지회 설립 전 대창노동조합이라는 노조가 있었습니다. 네 명이 가입한 휴면노조, 즉 유명노조였습니다. 노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대창에 노조가 필요했던 이유는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적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대창은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 노사협약에서 임금을 동결했고, 10년 다닌 노동자와 갓 입사한 신입사원 사이의 임금이 거의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대창은 매년 지급하던 복지포인트를 정지하고 생일 자에게 주던 상품권 3만원마저 없애버리고 사택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또, 대창은 흑자가 나도 사무실 연봉직

직원은 최소 160만원을 주고 현장 시급직 직원은 기본급 개념으로 1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가 말이 아니었죠.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험한 현장을 현장 노동자 손으로 안전하게 만들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금속노조를 만났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대창공장 앞에서 '신규노조 설립투쟁 승리, 민주노조 사수, 대창지회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바지락: 지회 설립과 임단협 체결까지 어떻게 지냈나요.

대창지회: 대창은 기존 휴면노조와 맺은 단협이 있으니 대창지회와 교섭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 하면서 교섭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회가 시흥시청에 휴면노조해산 진정을 제출하고 경기 지방노동위원회가 대창 노동조합 휴면노조 해산을 의결하면서 상견례를 열었습니다. 처음 회사와 교섭 자리에 마주 앉았지만 취업규칙만도 못한 개악안을 내밀고 지회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과 임금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타결하기 위해 77일 동안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했

습니다. 대창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 지회 탈퇴를 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끝까지 버티며 대창지회를 흔들었습니다. 지역 노조들과 금속노조가 연대하여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화공단을 행진하고 공장 앞으로 끝없이 몰려오는 금속노조 동지들을 보면서 가슴 속에 피어오르던 ‘동지애’는 지금도 잊을 수

가 없습니다. 임시 조합사무실인 공장 마당 천막에서 조합원들과 삼겹살을 구워먹고 공동체 놀이를 하며 웃던 날들…… 살면서 처음 겪어본 일들이라 어느 장면 하나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바지락: 대창지회를 설립하고 현장과 조합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나요.

대창지회: 지회 설립 이후 회사는 노동부 특별근로 감독관에게 지적받은 현장안전활동에 대해 중점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조합원들은 회사의 밀어붙이기식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제 노조라는 우산이 있다는 이유로 당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77일 파업이라는 힘든 시간을 겪은 이후 조합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회는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협상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만큼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고 투쟁하려고 합니다.

바지락: 노동조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창지회: 노동조합은 ‘버팀목’입니다. 노조가 노동자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주면 노동자는 어디서든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와 노력할 것이고, 힘들 땐 언제든 기대어 쉬다가 서로를 믿고 다시 재도약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지락: 노동조합을 고민하는 공단의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창지회: <송곳>이라는 만화를 보면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뺏기면 싸우고 맞으면 화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자본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화를 낼 줄 알아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다면 함께 맞서 싸워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노동자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함께 뭉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곁에 언제나 노동조합이라는 큰 우산이 있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는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길 바랍니다. 제발.

환기, 유해가스 배출, 인화물 제거, 접지, 비상대비 훈련 꼭 실시해야

[노동안전보건 칼럼] 용접 작업의 유해성과 노동자 생명 보호를 위한 수칙

최근 인천에서 카드뮴이 든 용접봉으로 작업한 노동자 세 명이 카드뮴에 장기간 노출돼 신장에 병이 생겼다. 카드뮴은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며 흡입, 섭취, 피부접촉을 통해 신체에 흡수되며 신장독성과 간독성, 생식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용접 작업의 경우 용접봉의 종류나 용접 소재에 따라 발생하는 유해성이 다르다. 고농도 망간에 노출된 용접 작업자에게 파킨슨 증후군이나 근육 긴장 이상 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용접 흠이 장기간 폐에 쌓여 용접공폐증(진폐증)이나 폐암이 발생한다.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용접 수정 과정에서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한 수지창백 증후군,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무거운 소재를 들고 나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등이 생긴다.

용접 작업 시 전선 케이블이나 불량한 접지로 인한 감전 재해, 자외선, 적외선 등 광선과 열에 의한 눈과 피부 화상, 주변 가연물이나 인화성 액체와 접촉을 통해 일어나는 화재나 폭발 재해가 자주 일어난다. 특히 좁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질식 재해가 큰 문제다.



용접은 아주 위험한 작업 중 하나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재해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노동자가 위험한 용접 작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당연한 권리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동료들과 모여 우리 사업장의 용접 작업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자. <자료사진>

용접 작업 안전보건 조치는 사업주 의무

용접 작업은 안전보건에 있어 종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용접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많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수칙 몇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작업장 안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용접할 때 흠이 대량 발생한다. 각 작업장 환경에 맞춰 국소 배기 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해야 한다. ▲둘째, 밀폐 작업공간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유해가스를 배출하고 적정 산소 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용접 작업장 주위의 인화성 액체와 가연성 가스를 반드시 치운다. ▲넷째, 감전 재해를 막기 위해 작업 전 용접기 접지를 꼭 실시한다. 케이블과 용접봉 홀더의 불량 여부를 확인 후 문제 발견 시 교체한다.

▲다섯째,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을 상시 실시해야 한다. 위에 제시한 원칙과 조치는 모두 사업주의 의무이다. 작업장 환기를 하지 않거나, 가연

성 가스가 있는 현장의 용접, 유해가스 존재를 알고도 밀폐 공간 작업을 강요하면 작업을 거부해야 한다. 용접은 아주 위험한 작업 중 하나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 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재해 예방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노동자가 위험한 용접 작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당연한 권리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동료들과 모여 우리 사업장의 용접 작업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자.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가장 약한 자의 손 잡아주기가 연대

[이주노동자 칼럼] 갓 태어난 노조가 이주노동자 해고 막기 위해 함께 싸워 이긴 이야기

한 사업장이 있다. 노동자 몸뚱이가 쇠덩이인양 일을 시키면서 퇴근길에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하면 그 길로 해고되는 말도 안 되는 곳이다. 사측은 각각 노동자와 임금계약을 다르게 맺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경쟁했고 사업주는 그 경쟁을 먹고 살았다. 이 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세웠다. 사측과 첫 단체협상을 앞두고 요구안을 만들면서 조합원들은 처음 각자의 급여명세서를 보았다. 나이든 한 여성노동자가 급여명세서를 내놓으면서 울었다. 가장 오래 일했는데 월급이 제일 적었다. 분노해야 하는데 도

리어 부끄럽다고 했다. 서럽다고 했다. 노조는 임금협상을 하면서 노동자 사이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률 아니라 정액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기기 위해 생산직 노동자 모두를 조직해야 했다. 당연히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했다. 사측이 임금인상에 맞서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주노동자들을 먼저 해고하려고 했다. 노조는 조합원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첫 파업을 했다. 노조는 이겼다. 생산직 노동자 모두가 참여한 작지만 단단한 노동조합이 새로 태어났다. 몇 년 전 금속 노조 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실

태조사에 참여했을 때 방문한 지 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최근 일부 건설노조 현장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현장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다단계 불법 하도급 구조, 만연한 임금체불, 위험한 작업환경이 아니던가? 노동자들끼리 경쟁을 붙여 여럿이 해야 할 일을 한 명에게 떠맡기는 노동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텐데 함께 싸워야 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면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몇 년 전 금속노조 실태조사를 마치고 얼마 후에 조합

원이 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조합원교육을 참관했다. 노조 간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연대가 뭐냐고 물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대답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간부의 말은 지금도 뚜렷이 기억이 난다. “연대는 가장 약한 자의 손 잡아주기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통역을 맡았던 이주민 활동가가 내게 물었다.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싸운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이주노동자들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대답했다. “그럼요. 민주노조가 가장 약한 이들의 손을 잡아 줄 겁니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진짜 민주주의는 회사에서부터!

우리 회사 근로기준법 위반,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아예 없음
·한 장만 싸인, 회사가 보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 요구
노조 상담, 노동청 신고**



연차휴가,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못 쓰게 함
·1년 미만 연차휴가 미지급
·연차휴가 월급 공제
·연차휴가 휴일 강제 소진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벌금
**연차휴가 사용 요구
노조 상담, 노동청 신고**



무료노동 ·조회·청소·교육·마무리를
근무시간 외에 시키는 것

·근로기준법 50·56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정시출근, 정시퇴근 요구
노조 상담, 노동청 신고**



무급휴업

·회사가 쉬라고 해놓고
쉬는 기간만큼 월급에서 공제

·근로기준법 46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휴업수당 지급 요구
노조 상담, 노동청 신고**



최저임금 위반

·기본급 135만원 미만 (2017)
·포괄임금제 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6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정확한 월급 계산
노조 상담, 노동청 신고**



임금 삭감

·당사자 동의없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6조 위반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노조 상담, 노동청 신고



폭언, 폭행

·관리자의 욕설, 폭행

·근로기준법 8조 위반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증거 확보
노조 상담, 노동청 신고**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우리 생활 주변에는 수 많은 **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러한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혜로운 소비**를 해야 합니다.
옥시사태에서 보았듯이 우리 **안전**을 기업에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 앱스토어에서 **'우리동네 위험지도 2.0'**을
무료다운받으세요



우리동네 위험지도 2.0

- 어린이제품 위험정보
- 생활화학제품 위험정보
- 안심어린이집 정보
- 개인의료방사능 피폭정보
- 주변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사용자 참여 방법

1. 정보를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사진을 찍어 올려주세요.
앱에 탑재된 **[제품분석 신청하기]** 클릭!
2. 제품분석 비용마련을 위한 펀딩에 참여해주세요.
앱에 탑재된 **[추진단체 후원하기]** 클릭!

여성은 오후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3시 STOP

109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

2017년 3월 8일 수요일 광화문광장

14:30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주최: 민주노총

15:00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여성대회 & 행진 주최: 3시 스탑 공동기획단

